



(5) 한짓골생활협동조합 공유공간

1 원도심 골목길에 자리잡은 한짓골생활협동조합 공유공간.
 2 재봉 작업을 하고 있는 한짓골 조합원.
 3 조합원들이 판매용 면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4 공유공간 작업실 벽면에 천연염색 제품 제작에 사용될 색색의 재봉실이 걸려있다.

잊혀진 골목 풍경에 고운 색깔 입힌다

거기에 골목이 있었다. 자꾸만 크고 넓어지는 길의 풍경 속에 원도심 골목에 조용히 자리한 한짓골생활협동조합 공유공간(제주시 중앙로 14길 15-6)이 보인다.

옛 살림집을 리모델링한 연면적 약 69㎡ 규모 한짓골조합 공유공간은 지자체 소유로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출범 초기 사용했던 곳이다. 제주도시재생센터가 철성로 입구 제주감혁 건물에 새로이 동지를 틀며 비어 있었다. 천연염색 공방을 꾸려 지역민 중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펴온 한짓골조합이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해 체험, 판매, 교육을 벌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짓골조합은 삼도2동부녀회에서 출발했다. 부녀회원 일부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 참여해 천연염색 교육, 삼도풍류축제 천연염색 체험부스 운영, 워크숍 등으로 내실을 키워왔고 이는 2017년 12월 한짓골조합 창립총회로 이어졌다.

현재 한짓골조합원은 23명에 이른다. 삼도2동만이 아니라 용담동, 오라동에 사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삼도2동 어느 공방을 위탁판매업체로 지정해 얼마 전 처음으로 천연염색 제품을 납품했다.

고미경 대표이사는 “공유공간 앞 골목이 예쁜데 평소 사람이 잘 다

도시재생센터 초기 활용 살림집 리모델링한 시설 지난해 7월부터 조합 입주 천연염색 교육·판매 기반 물항골·소공원 활성화 추진

니지 않는 곳이다. 한짓골조합이 생기고 공유공간에서 체험, 판매를 시작하면서 골목을 오가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만원의 출자금으로 걸음을 땀 한짓골조합은 회원들이 저마다 가진 재능을 나누고 있다. 이제야 재봉틀을 만지는 이들도 있지만 재봉보다 열정으로 그 한계를 넘어왔다. 재봉이나 손바느질 기술을 서로 배워주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염색 작업을 맡아 조합 운영에 힘을 보탠다.

가방, 스카프, 옷, 지갑, 모자, 손수건 등 한짓골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은 소박하지만 남다른 데가 있다. 폐전, 헌옷 등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 고쳐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이 그것이다. 지난 4월에는 회원들이 손수 제작한 천연염색 마스크 700장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철성로상점가에 지원했다. 5월엔 농협관덕로지점 초청으로 천연염색

작품을 열었는데 반응이 좋아 전시 기간을 연장한 일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외부 사업을 확대하는 대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해왔다. 체험은 소수 인원만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감염병 기체가 누그러지면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한짓골 조합에서 생산한 감물 염색 한복 등을 입고 제주목 관아, 동문시장 등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 소공원에 주요 염색 재료인 감나무를 심어 키우고 ‘물항골’로 불린다는 공유공간 앞 골목에서 매일 한차례 정기적인 플라마켓 운영도 꿈꾼다.

문아네스 조합원은 “코로나로 마스크 공급이 달릴 때 매일 6시간씩 모여 작업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며 공유공간을 따뜻한 원도심을 가꾸는 곳으로 소개했다. 그는 “원도심에서 어린이, 청년, 노인들은 갈 데가 있지만 중장년 여성들엔 없다”며 “예전의 공동빨래터처럼 여성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말로 공유공간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유공간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과 목요일엔 문을 닫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산지천 비촌 '탐라의 시간' '탐라 감동을 빛다. 내일을 잇다'를 표어로 내건 제59회 탐라문화제가 비대면 거리두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위주로 7-11일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축제 기간 중 탐라문화제 행사장이던 제주시 도심 산지천 광장에 저녁마다 미디어아트 '탐라의 시간'이 불을 밝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문예재단 직원에게 폭언 말아달라”

지원사업 부서 통화 녹음 “민원인 욕설 등 예방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정보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동의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최근 제주문화예술포럼에 전화를 걸면 이런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 경영부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에 통화 녹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문예재단은 문화예술 공모 사

업과 관련 심의 결과를 두고 전화를 걸어 폭언 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취해진 조치라고 했다. 제주문예재단 측은 “지원사업 공모에서 탈락했거나 인터넷 지원 신청 방법을 재단에 문의하는 과정에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며 “재단 노사협의회를 통해 민원인과 통화 횟수가 많은 지원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폭언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선희기자

네 번째 김만덕주간 온라인으로 나뉘요

기념사업회 이달 18~24일 만덕제 봉행·나눔미 켈린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

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하는 제4회 김만덕주간 행사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나눔큰잔치’는 취소하고 만덕제와 김만덕상 시상식만 치른다. 첫 날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마련되는 만덕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만덕주간 온라인 프로그램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을 구매한 뒤 이달 2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미(米) 켈린지’, 나눔·봉사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슬기로운 나눔생활’이 준비됐다.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김만덕기념관 참고. 문의 064)759-6093.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제주인드 공연 온라인 중계

창단 21년째인 제주인드오케스트라(지휘 임대홍)가 지난 10일 문예회관에서 무관중으로 펼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유튜브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2019년 제주국제관악제 창작곡인 박성균의 ‘씨 유인 제주(See U in Jeju)’, 제주 초연 필립 스파크의 ‘더 송 오브 더 벨(The Song of the Bell)’, 한국 초연 노르웨이 작곡가 아이빈드 모의 ‘스케치 오브 페인(Sketches of Pain)’ 등을 선곡했다.

상지서회 ‘제주필목기행’

제주 상지서회(회장 황재오)가 제주 시 오현길에 있는 W스테이지에서 지난 10일부터 아홉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제주필목기행’이란 이름을 내건 이번 전시엔 18명의 회원이 참여해 제주 역사, 자연을 담은 옛 사람들의 시 등을 붓글씨로 옮겼다. 출품작은 40점에 이른다. 지도를 맡은 오장순 서예가는 ‘若無漢筆(약무한라)’를 찬조 출품했다. 전시는 이달 15일까지. 관람 가능 시간은 오후 1~6시.

제주캘리사랑 회원전

제주캘리사랑모임(회장 이명숙)이 세 번째 회원전 ‘제주필스토리’를 이달 12~20일 한라도서관에서 펼친다.

‘삶의 길목에서 함께한 시간들’이란 이름을 단 전시엔 8명의 회원이 코로나19에도 삶은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손글씨를 선보인다. 이명숙 회장은 “마음에 꼭 박힌 글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했다. 이달 22~28일에는 KBS전시실에서 2차 전시를 갖는다.

“제주슬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슬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